

원기78년도 연구발표

교화단 변천과정에 대한 정리

1993. 04. 15

3) 교화단 조직의 변천과정

역사 속에는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침이 들어있다. 여기에서는 소태산의 대각과 함께 교화단 조직이 형성되고 변천되는 과정과 그 교화단을 통하여 진행되었던 주요 훈련 내용과 방법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대중사 역시 대각과 더불어 열반에 이르기 까지 교화단 조직을 통해 제생의세의 경륜을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현재 교화단 조직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화단의 현실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영산시대의 교화단¹⁾

소태산은 오랜 구도 끝에 원기 원년(1916) 4월 28일 대각을 이루게 된다. 같은 해 12월 경에는 믿고 따르던 40여명의 제자들 중 여덟 사람만을 골라 단을 결성하고 십인 일단의 단 조직을 예시하다가 이들의 믿음을 더욱 굳힌 후 원기 2년(1917) 음력 7월 26일 조단법에 따라 각 방위별로 최초의 남자 수위단²⁾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이 점에서 보면 원불교 최초의 교화는 조직을 통한 교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소태산은 최초의 교화단을 조직한 후 단원들의 신성이 날로 전진하지만 진리에 대한 공부심이 미약함에 따라 단원의 정도가 아직 정법을 말하기에는 시기 상조임을 간파하고 종종 하늘에 제사하여 그 심리를 결속케 하고 직접 지도할 말도 천제의 말씀이라 하여 그 실행을 권면하게 된다.

그리하여 단원 들은 소태산에 대해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조금도 어기고 지체하는 바가 없게 됨에 따라 차차 새로운 훈련 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먼저 정식으로 매월 삼순일에 예회보는 법을 지시하여 모임을 가지되, 신을 어긴 자는 상당한 벌이 있게 하고, 성계명시독이라는 책을 만들어 단원들의 10일 동안 지낸 마음을 조사하는 등 신성 진퇴와 실행여부를 대조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구인 단원에게 시방세계를 응했다는 사실은 단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였으며 예회를 통한 훈련과 성계명시독의 마음단련공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가속화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⁴⁾

1) 소태산이 대각한 원기 원년(1916)부터 원기 4년(1919)년까지로 9인 제자를 선정하여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성사를 이루었던 시기이다.(『원불교교사』, p.1043-1057 참조.)

2) 건방 이재풍, 감방 이인명, 간방 김성구, 진방 오재겸, 손방 박경문, 이방 박한석, 곤방 유성국, 태방 김성섭이었고, 중앙은 그 당시 비위두었다가 1년 후인 원기 3년에 송도군에게 부여하게 된다.

3) 서경진, 앞의 책, p.209.

4) 이성택, 「훈련사」, 『원불교70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p.498.

원기 2년(1917) 음력 8월에는 이들과 함께 저축조합을 창설하고 금주 단연과 허례허식의 폐지로 인한 저축, 명절휴일을 줄인 특별 노동 수입의 저축, 시미(匙米)⁵⁾의 저축 등을 장려하게 된다. 이는 공부할 비용과 사업할 자금을 예비하기 위한 목적 이면에 공금(公金)과 공사(公事)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근검저축하는 정신을 가지게 함에 따라 그 자체로서 생활개선을 위한 훈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 진다.

저축금액이 2백 여원에 이르자 소태산은 단원들과 더불어 원기 3년(1918) 3월 방언공사에 착수하였다. 갖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이듬해인 원기 4년(1919) 3월에 준공되어 2만 6천여평의 농토를 마련하게 된다. 소태산은 방언공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단원들의 참된 신심의 유무와 모든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힘의 유무를 알게 되고, 단원들로 하여금 복록의 근본을 알게 하며, 술성하는 법이 골라져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겨낼 힘을 얻도록하기 위함⁶⁾이라 밝힌다.

더불어 새 회상의 첫 교당인 옥녀봉 구간 도실이 원기 3년(1918) 10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되면서 공식적인 단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단원들은 낮에는 방언공사의 힘겨운 노동을 하나 밤에는 소태산의 법설 등의 훈련을 통해 사업과 공부를 병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점차 지혜의 길이 개척되고,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며, 타력에만 의뢰했던 생각이 자력을 찾게 되는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방언공사를 마친 소태산은 새 회상을 열기 위해 법계의 인증을 받기 위한 특별 기도를 실시한다. 단원기도는 단원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는 자각을 통해 비롯되어 음력 3월 26일부터 매월 음력 6일, 16일, 26일 정하여 각각 지정한 방위와 봉우리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소태산은 단원들에게 살신성인을 실행하여 이적을 나타낸 선인들의 예를 들면서 천지신명이 감동할 수 있도록 사(私)없는 기도를 촉구하였다.

단원들은 드디어 원기 4년(1919) 음력 7월 26일을 최후 희생일로 정하고 이날 사무여한이라는 증서를 써서 백지장을 찍고 결사(決死)의 뜻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결국 백지혈인의 이적이 나타게 되었다. 이에 소태산은 단원들에게 법호와 법명을 주며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고 부촉하게 된다.

이처럼 영산시대 교화단의 첫 출발은 원기 원년(1916) 12월, 교단 창립의 표준제자로 9인을 선정한 데서부터 비롯하여 원기 2년(1917) 7월 26일에 조단법에 따른 첫 남자 수위단 조직 및 예회와 성계명시독의 실시, 원기 2년(1917) 8월 저축조합

5) 후일 보은미(報恩米)

6) 『대종경』, 서품 10장.

실시, 원기 3년(1918) 3월 방언공사 착수, 10월 옥녀봉 구간도실 건설과 함께 공부사업의 병행, 원기 4년(1919) 음력 7월 26일 법인성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 첫째, 모든 교화와 훈련이 단장인 소태산의 탁월한 지도력과 9인 단원들의 한결같은 신성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둘째, 교화와 통치의 구분이 없었으며⁷⁾, 셋째, 교단 초기이므로 일정한 형식이 없이 교화단을 통하여 소태산이 직접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넷째, 단원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교단 운영의 경제적·정신적 기반을 닦아가면서 교단의 정신적 주체가 되는 창립정신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변산 시대의 교화단⁸⁾

소태산은 중앙인 정산을 변산으로 보내는 한편 자신도 영산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산에 입산하게 된다. 입산 동기는 다년간 복잡했던 정신을 휴양하고, 회상 창립의 교리 제도를 초안하고, 사방 인연을 연락하여 회상 공개를 준비하며, 험난한 시국에 중인의 지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단장과 중앙의 변산 입산으로 최초의 교화단은 활동을 유보하고, 단장과 중앙을 중심으로 새 회상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전념하게 된다. 나머지 단원은 영광에 남아 저축조합의 뒷마무리와 간척담 관리와 수호, 그리고 각자의 가사를 돌보았다. 원기 4년(1919) 음력 10월 26일에는 단원기도의 해제식을 거행하고 저축조합을 ‘불법연구회기성조합(佛法研究會期成組合)’으로 고침으로써 조직의 위상을 새롭게 하게 된다. 동시에 모든 기록에도 일제히 불법의 명호를 쓰게 하여 앞으로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큰 회상을 건설할 의지를 드러낸다.

소태산은 대각 후 동서고금의 여러 경전을 두루 열람하여 결국 불법에 연원을 대어 주체를 삼는 일방 모든 교법도 이에 통합 활용할 뜻을 가졌었다. 이러한 뜻은 결국 새 회상의 교법을 초안하는데 반영이 되어 교서 편찬의 자료를 삼는 한편, 백학명, 한만허 등 불교 승려들과 교체하며 재래 사원의 모든 법도를 일일이 청취하고, 창립 인연을 만나는 과정에서 각종 각파의 제자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기 5년(1920) 4월에 봉래산에서 새 회상의 교강을 발표하니, 그 내용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팔조목이다. 소태산은 이후 모든 신자를 교화할 때, 기존의 발심 신성 단결 공심이 아닌 신제교강(新制教綱)으로써 교화의 주체를 삼게 된다.

이후 소태산은 봉래산에서, 각지 신자가 불어남을 보고 다시 조단 교화를 시험하

7) 장진수, 「소태산 재세시 원불교 교화단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원불교대학원대학교석사논문, 2000, p.4

8) 원기 5년(1920)에서부터 원기 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이전까지로 소태산이 법인성사를 마치고 변산에 들어가 새 교법을 준비하고 새 회상의 인연들을 만났던 시기이다.(『원불교교사』, p.1057-1065 참조.)

기 위하여, 원기 6년(1921) 6월에 영광 지방에 남자 1단을 조직하였다. 이어 김제와 전주 교회가 활기를 띠면서 여 신도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여자단의 조직이 요청됨에 따라 같은 해 8월에는 영광·김제·전주 등지를 합하여 남자 1단, 여자 1단을 조직하게 된다.

그러나 정원이 고르지 못하고 일정한 통치를 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조단 사무를 중단하고 후일을 기다려 다시 실행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종전대로 소태산이 직접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소태산은 자신을 찾아오는 신자들의 정성에 감응하여 많은 설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법설 요지는 관심 입정과 견성 성불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봉래정사에서 새로 초안된 교강과 교서로 예비훈련을 여러 사람의 근기에 따라 예비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⁹⁾ 이러한 훈련의 결과 그 성적이 매우 좋아 모든 신자들의 정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진보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산 시기에서는 교화단 조직의 운영방법이 정원과 일괄적인 통치의 어려움으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태산의 변산 입산은 교강과 교서 초안을 함과 동시에 꾸준히 조단법과 훈련법 등을 시험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창립 인연을 결속하여 본격적으로 자신의 포부와 경륜을 실현할 회상 창립의 준비기였다. 비록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단 활동은 거의 없었으나, 소태산과 정산을 중심으로 이후 회상 공개와 함께 활발히 진행될 교화단 조직과 훈련법 등 각종 법규의 준비로 바쁜 나날이었다.¹⁰⁾

(3) 불법연구회 시대의 교화단¹¹⁾

불법연구회 시대에는 교화단 조직의 변환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내용상 적어도 4차례 이상의 조단이 소태산에 의해 직접 단행되었으며, 4차에 걸친 수위단 조직임원회가 실시되었고, 단규에 대한 수정 작업도 2차례 이상 진행되었다.¹²⁾ 이는 소태산이 구상하였던 십인일단의 교화단법을 완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본 단락에서는 연구 내용상 교화단 조직운영의 원리적 법규인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을 만들고 교화단을 통한 교화와 훈련의 체계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원기

9) 초기 교서인 수양연구요론에서는 근기에 따른 공부의 진행순서를 초심(初心), 발심(發心), 입지(立志), 수양(修養), 연구(研究), 취사(取捨), 세밀(細密), 입정(入靜) 등 8단계로 밝히고 있다. (『수양연구요론』 제7 공부인의 진행순서, 『원불교교고총간 제4권』, 원불교출판사, 1994, p.49.)

10) 장진수, 앞의 글, p.8.

11) 원기 9년(1924)에서부터 소태산이 열반한 해인 원기 28년(1943)까지로 그 당시 회명(會名)을 참고하여 불법연구회 시대로 칭(稱)한다. (『원불교교사』, p.1066-1101 참조.)

12) 장진수, 앞의 글, p.9-16 참조.

16년(1931)을 전후로 하여 단회의 주요활동 내용과 각종 관련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¹³⁾

원기 9년(1924) 익산에서의 본격적인 교화사업을 시작하면서 교화단의 이름은 아니지만 전무출신단(專務出身團), 전무출신기성조합단(專務出身期成團), 거진출진단(居塵出塵團), 시보단(試補團), 기성단(期成團) 등의 조직이 있었으나 이는 상하를 연계하는 교화단 조직이라기보다, 다만 출가공부인과 재가공부인의 구분과 함께 목적사업을 위해 기금조성을 위한 교화단과는 별개로 조직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인재의 교육과 경제적 자립이 교단의 당면 문제로 대두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기 12년(1927)에 ‘산업부창립단’이 조직되고 이어 ‘육영부창립단’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단’이라는 명칭을 가졌을 뿐 교화단의 본래 성격보다는 자금마련을 위한 사업추진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원기 13년(1928)에 이르러 교화단은 사업과 공부를 병행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다.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입문자에 대한 조직적인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화단의 본질에 접근하면서도 상황성을 가미하게 되었다. 즉 단을 조직할 때 각자의 원에 따라 전무출신실행단, 거진출진단, 전무출신기성단, 보통단의 4종으로 구분하였으며, 단장에게는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하였다. 한편 각 단에는 특정한 사업목표를 갖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¹⁴⁾ 그 후 원기 16년(1931)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으로 교화단조직의 원리와 운영세칙이 마련됨으로써 교화단 교화는 처음으로 체계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불법연구회 시대의 단회는 단규강습, ‘농업부창립연합단’과 ‘인재양성소연합단’의 취지설명과 단금수합, 의견제출과 심의, 단원일기성적조사 등을 주요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단규강습은 소태산이 십인일단의 교화단법을 진행할 때, 교화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추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기 13년(1928) 음력 7월 26일 「신단규」가 예회 때 공포된 이후, 매월 음력 16일 오후에 있던 단회를 오전까지 확장시켜 진행하여 오전부는 단규강습에 할애하였다. 음력 10월 16일부터 오전 오후로 단회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단규강습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매월 단회 때마다 2·3인의 연사가 등장하고 있다. 단규강습은 단규낭독과 그 의지 설명, 문답 등으로 진행되는데,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대중이 직접 강연의 형식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강연자로 송도성, 전음광, 송만경, 김기천, 송규 등이 자주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이후 통치조단규약의 편찬에 참여하거나 향단장 등을 맡는 등 교

13) 장진수, 같은 글, p.15-22 참조.

14) 이성은, 앞의 책, p.423-424.

화단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교화단회에서 교화단의 이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양 연합단은 원기 13년(1923) 4월에 발족하게 되고 이후 차차 모든 교화단이 양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후 원기 18년 3월 제5회 정기총회에서 인재양성부가 신설되고, 이듬해 개정된 『불법연구회 규약』에서 산업부와 육영부로 신설되면서, 남자 육영단, 여자 육영단으로 이어져 교화단의 중요사업이 되었다. 단회에서는 원기 14년(1929) 음력 2월 16일부터 양 창립단의 ‘취지서 낭독’을 실시하여 그 사업을 진작시켜 주었으며, 단회 시간에 단금을 수합하였다.

의견제출은 원기 11년(1926) 음력 7월 26일에 시작된 단회의 주요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매월 단회 때 대중의 토론을 거쳐서 종법사의 감정을 받고 그 의견이 가결되는 때는 연구부에 접수되어 불법연구회의 세척이 되었다. 소태산은 조단법과 훈련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여러 제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문답하고 토론하는 대중적 공의를 거쳐 공사(公事)로서 진행하였다. 이는 모든 단원들이 공동체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였으며, 이후 급박하고 험난한 시국 속에서도 일심합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되었다.

소태산은 재가 출가를 물론하고 상시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하여 매일 일기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단원에 대한 일기성적조사는 단회의 주요 활동이었으며, 매월 16일 1회씩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여 단장이 있는 단은 단장이, 없는 단은 중앙이 대리로 조사하여 매년 음력 12월 26일 교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 성적을 사업 보고서에 발표하였다. 체계적인 단원의 일기조사법이 실행된 것은 「신단규」가 제정된 이후 원기 13년(1928) 10월 경 부터라 하겠다.

단원 매일 일기조사법의 항목은 크게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부성적으로 염불좌선·교과서연습·취사실행, 사업성적으로 정신근고·육신근고·전곡혜시, 그리고 의견제출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원기 15년(1930) 9월 25일 이후 삼강령 훈련등급으로써 ‘연구과 일기부’에 대한 학력 고시를 실시하여 일기법의 의지와 기재방식의 숙지 정도를 따라 5반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소태산은 이후 일기부 갑반에 승급한 사람만 성적을 발표하게 하였다. 일기부 갑반에 올라 수업증을 받은 자는 일기에 대한 법칙을 교수할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바로 단장의 주요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하였다.

소태산은 동하선 6개월간의 정기훈련과 교화단회를 통한 상시훈련을 꾸준히 시켜왔으나, 이미 훈련법과 같은 해에 발표된 ‘학력고시법’과 학위등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미루어 왔다. 그 후 교화단의 성숙과 일기법의 정착으로 학력고

시법을 적용하기에 이른다.

원기 15년(1930) 11월 15일 경 소태산은 ‘삼강령 훈련등급’을 제정하여 이후 이로써 학력을 고시하였다.

이전까지는 각 선(禪)에서 공부인의 성적을 고시할 때 수양·연구·취사의 삼방면을 합하여 보게 되므로 그 사람의 정도를 철저히 고선(考選)하기가 곤란하였으나, 이후 연구는 교과서 해석, 수양은 과정 성의, 취사는 학과 실행이라 명칭하여 한 사람의 성적을 삼방면으로 보게 하였다.

이 후 원기 17년(1932) 음력 1월에 교리 전체를 총괄적으로 망라하여 편집된 『보경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이 인쇄에 들어간다. 이 책에서는 표어와 총론¹⁵⁾을 밝히고, 그 내용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 정기와 상시의 훈련편,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의 단계별 훈련평가법인 학력고시편,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공부인의 수행정도를 6가지로 밝히고 있는 학위등급편, 그리고 본회 창립을 위한 사업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고시편 등이었다.

원기 19(1934)년에는 ‘예비 학력고시법’이 제정되어 삼과(三科) 전부의 허가를 얻은 자는 법강항마부에 승급하도록 하여 학력고시의 결과가 곧바로 법위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처럼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과 『보경육대요령』의 발간과 네 차례의 조단을 거치면서 불법연구회 시대의 이단치교와 법치교단의 실현을 위한 시도가 일단락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기 9년(1924) 익산에 불법연구회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면서, 少太山은 본격적인 조단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무려 네 차례의 조단을 직접 실시하였고, 각 조단을 통하여 교화단의 위상을 조금씩 높여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을 종합하여 원기 16년(1931)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을 발행하였다. 또한 훈련법과 일기법, 학력고시법, 학위등급법, 신분검사법 등 일련의 관련법을 제정하였으며, 교화단을 통치기관(統治機關)으로 하여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아울러 진행해 나갔다. 수양과·연구과·취사과의 학력을 고시하여 각 과목에 대한 훈련의 단계별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가 바로 법위(法位)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교화단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차차 모든 단이 농업부와 인재양성소 창립의 자금마련을 위한 사업에 적극 가담하였고, 의견제출 제도 등을 통하여

15) 표어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로 현 원불교 정진의 개교표어이며, 총론의 내용은 정진 총서편의 ‘개교의 동기’의 내용이다. 소태산은 그동안 수많은 변화과정을 통해 이룩해온 교화단의 조직과 훈련법을 널리 중생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고치고자 했던 제생의세의 서원과 이어지게 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회상의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단규」 강습 등을 통해 교화단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단회 때는 단원의 일기 성적을 조사하여 상시훈련을 점검하여 나갔다.

지금까지 교화단의 변천과정을 소태산이 주로 교화를 주재했던 곳을 중심으로 영산시대·변산시대·불법연구회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태산의 전 생애를 교화단 활동을 중심으로 나누어 볼 때, 크게 두 번의 활동기와 두 번의 준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⁶⁾ 이는 소태산의 재세 28년 동안이 오직 교화단을 통해 제생의세를 구현하기 위한 산 역사였음을 증명한다. 그 방법으로 교화단을 조직하고 훈련법을 비롯한 모든 교법을 제정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즉 모든 중생을 진리의 품인 교화단으로 이끌어 새 교법을 훈련시키고 법위를 향상시켜 모두가 자신과 같은 인격을 갖춘 부처가 되도록 한 것이다.

16) 영산시대와 불법연구회 시대 전반기를 ‘활동기’라 한다면, 변산시대와 불법연구회 시대 후반기는 ‘준비기’라 할 수 있다.(이성은, 앞의 글, p.25.)